

70,000 hours of accident-free flight with the Korean-made KT-1

ROKAF 3rd Wing 217th Squadron

On the 10th, the 217th Flight Training Squadron achieved a record 70,000 hours of accident-free flight. Established in June 15th 2000, members of the squadron cooperated under the motto “Be loyal to the basics” for the past 14 years to achieve this record.

The 217th Squadron which deployed the Korean-made aircraft KT-1 for the first time in ROKAF achieved the record only on a KT-1 trainer, which verified the stability and excellence of the KT-1 trainer

The KT-1 satisfies every needs and capabilities as a basic trainer and is equipped with superior maneuverability and low fuel consumption compared to similar levels of trainers. Furthermore, it provides stable operation during low-speed flights and take-off/landing and excellent recoverability from emergency situations regularly confronted during training. The KT-1 aircraft is praised as the most adequate trainer for the basic training program.

217th Squadron Commander Lieutenant Colonel Byun Seong-eun said “This record was possible due to the teamwork of every member working under intense focus to service every single flight” He also exclaimed that “He will continue the effort to maintain an accident-free record and contribute to the education of elite pilots of ROKAF.”

The 3rd Training Wing which operates KT-1 aircraft manufactured with domestic technology has a scientific flight education system employing KT-1 simulator and debriefing system with GPS.

On September 2013, the 213rd squadron achieved a record of 200,000 hours of accident-free flight which stands as the first and longest record in ROKAF.

국방일보

2014년 10월 14일 화요일 3면

KT-1 국산 훈련기
7만 시간 무사고 비행
공군3훈련비행단 217대대



공군3훈련비행단 217비행교육대대는 지난 10일 국산 훈련기 KT-1으로만 7만 시간 무사고 비행의 대기록을 세웠다.

2000년 6월 15일 창설된 217비행교육대대는 대대 창설 이후 지금까지 14년간 '기본에 충실하자'를 모토로 전 대대원이 일치단결해 이번 기록을 달성했다.

특히 217대대는 국산 훈련기 KT-1을 최초로 전역화한 부대로 이번 7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은 오로지 KT-1 항공기만 수습해 기본과정 훈련기로서 KT-1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T-1은 훈련 과정에 요구되는 모든 성능을 완벽하게 충족하면서

공군3훈련비행단 217비행교육대대가 7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수립한 뒤 지속 행사를 하고 있다.

부대 제공

도 동급 대비 우수한 기동성과 낮은 연료소모를 자랑한다.

또한 저속비행과 이착륙 시 항공기 조종이 안정적이고 학생 조종사들이 비행 훈련 중 겪을 수 있는 비상 상황에서도 우수한 회복 능력을 갖춰 기본과정 비행훈련에 가장 적합한 훈련기로 평가받고 있다.

217비행교육대대대장 변성은 중령은 “이번 기록은 단 한 번 비행을 하더라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전 대대원이 합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대대의 무사고 전통을 계속 이어가자 조속 발위의 핵심인

조종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기술로 제작된 KT-1 항공기를 운용하는 공군3훈련비행단은 국가방위의 핵심 전역인 공군의 정예 조종사 양성을 위해 KT-1 시뮬레이터와 GPS를 이용한 디브리핑 시스템 등 과학화된 비행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13년 9월에는 213비행교육대대가 공군 창군 이래 최초-최장기록인 20만 시간 무사고 비행의 대기록을 수립한 바 있다.

이승복 기자 yhs9200@dema.mil.kr